

아메디아(アメディア) 시각장애우의 독서 지원

1) 기업개요

- 소재지 :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-15-10西早稲田関口3F
- 분 야 : 시청각 장애인용 시스템 개발 판매
- U R L : <http://www.amedia.co.jp>

2) 기업 소개

□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독기 개발

- 아메디아(アメディア)가 개발한 시각장애인용 음성독서기 ‘요무베(よむべえ)’는 스캐너로 인쇄물의 문자를 읽어 음성으로 변환해 읽어 주는 장치임
 - 2003년 발매 이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여 2010년 10월 현재 총 3000대의 판매 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달 약40대 정도를 판매하고 있음
- 이 회사는 1989년에 설립된 시각장애인용 시스템 개발 회사로 모치즈키(望月) 대표 역시 시각장애인으로 전직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음
 - 모치즈키 대표는 “교원시절 사용하던 컴퓨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”고 함
 - 회사 설립 이후 주로 PC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했으나, 지금은 PC와 분리하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‘요무베’의 매출이 더 많아졌음

- 모츠즈키 대표는 시각장애인의 컴퓨터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, 앞으로의 사업영역 확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음

□ ‘DAISY’ 녹음 도서의 판매

- 아메디아는 2006년 11월부터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본즈사가 만드는 음성안내 기능이 내장된 MP3 플레이어도 판매하고 있음
- 오샤베리레코더(おしゃべりレコーダー)라는 상품명으로 팔리고 있는 이 제품은 디지털 녹음 도서의 국제규격인 ‘DAISY(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)’ 를 갖추고 있음
 - 종래의 오디오북은 카세트테이프 형태로 만들어져 되감기와 빨리 감기 등의 조작이 필요해 사용편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음
 - 이에 반해 이 제품은 정확한 페이지, 단락, 항목 그리고 줄까지도 검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

□ 읽기 쉬운 인쇄물의 개발 활동

- 이 회사의 사명은 단순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련 기기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음
 - 지난 2007년 2월에 프린트 액세스빌리티(Print Accessibility, 인쇄물이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읽기 쉬운가를 나타내는 용어)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음
 -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인쇄물을 읽을 때는 점자로 읽거나 다른 사람이 읽어 준다는 것이 많은 일반인의 인식이지만 사실문자인식과 음성합성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각장애인이 관련기기를 이용하여 인쇄물을 읽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

- 모치즈키 대표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인쇄물들이 이러한 시각장애인의 독서 환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말함
- 예를 들어 패션잡지의 화려한 인쇄는 글자 색과 배경의 구분이 어려워 실제 문자 인식이 오인할 가능성이 높음
- 신문은 레이아웃이 날로 복잡해지면서 읽기 순서를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
- 모치즈키 대표는 모양과 기능적인 단조를 우선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인쇄물을 시각장애인도 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쇄물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음
- 지금은 연구단계이지만 앞으로는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적극적으로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프린트 액세스빌리티의 개념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함

□ 프린트 액세스빌리티를 생각하며...

- 인쇄물을 제작할 때 흰 종이에 검은 글자로 인쇄하거나 명조체와 고딕체 등 일반적인 서체를 사용하면 기기의 오작동을 막을 수 있다고 함
- 인쇄물 작성자의 작은 배려가 프린트 액세스빌리티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
-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여러 불편함을 보완하는데 사업의 역량을 집중시켜 온 이 회사에게 프린트 액세스빌리티의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개발 활동의 전개는 여러 뜻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음